

실라리안 소백산 썩돈

대구경북지소 과장 백상국



실라리안은 옛날 신라인의 후예들로, 경상북도의 광둥브랜드명이다. 친해 환경 지인의 쾌적하고 정결한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주, 예천, 봉화, 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돼지에게 야생썩을 칩가 급이하여 생산한 소백산썩돈은 웰빙시대에 가장 적합한 돼지고기이다.



연구개발 배경

썩은 동의보감에서도 미타민이 많고, 알테미시닌 성분과 카벳킨 성분이 함유되어 항암효과 및 노화방지, 위장질환(설사) 예방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콜레스테롤함량을 낮추어 성인병예방 및 저항력 증진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효능을 지닌 썩은 우리나라의 산야에서 많이 서식하여 약용으로 많이 사용해왔으나, 특유의 쓴맛으로 가축사료로서 이용률이 낮았다. 이런 점에 착안, 부존자원의 활용차원에서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김병기 박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돼지가 쉽게 섭취하면서 썩의 특이성분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사료화 기술을 개발하였다.(썩을 주원료로한 돼지용 칩가사료 제조방법-특허등록, 경상북도) 이를 생산자인 소백산썩돈영농조합과 사료업체에게 기술이전을 했고, 상표(실라리안 소백산썩돈)는 유봉업체에게 사용권을 이전하여 실라리안 소백산 썩돈이 탄생하게 됐다.

종돈 및 사양관리

소백산썩돈은 전량 구시월드(주)에서 생산한 우량 종비돈만 사용하고, 우량 종모돈 정액은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AT센터에서 생산 공급하는 정액 사용으로 종돈을 통일하였다. 사양관리는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기술지도와 함께 연구개발·보급한 매뉴얼에 따라 생시부터 비육출하(170일령)까지 규격돈 생산을 위해 사육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자돈의 경우에 절치는 생후 1일 이전에 실시하고, 거세는 1~2주 이내에 완료하며, 썩사료급여는 이유부터 출하시까지 급여한다. 특히 받드시 비육후기에 썩사료를 급여해 생산품의 품질 균일성 유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2004년 기준 A·B등급출현률은 74%이다.

소재지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감산 2리 321번지
(대표자 : 권영홍)

홈페이지

www.
sobaeckssukpork.com
(054-634-3973)

상표권자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상표등록

제580393호
(사육규모 : 약22,000두,
12호)



썩돈고기 맛의 특징점

소백산썩돈은 오늘날 웰빙시대에 적합한 돼지브랜드육으로서 돼지고기 고유의 잡냄새가 전혀없고,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함량(31.7%)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으나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더 높으며, 육질의 다즙성과 연도가 개선되어 부드러우며 저장성이 더 길다. 특히 어릴때 부터 장기간 썩 급여로 고기에 향산화 및 노화억제 효과가 있는 썩 고유의 성분인 카텝킨 성분이 다소 축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썩돈생산에서 판매까지

썩돈제품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성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신기술을 보급·지도 하고, 썩사로 제조·공급은 농협 안동사료공장과 도드람B&F(주)에서 맡고 있다. 생산은 소백산 썩돈영농조합 법인에서 도축은 HACCP의 인증 뿐만 아니라 위생방역관리 1등급 인증을 받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인 동아LPC(주)에서 하고 있다. 또한 가공·유통판매는 동아미트(주)와 소디프B&F(주)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철저히 역할 분담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의 의미와 향후계획

소백산영농조합법인은 '02년 10월에 출범하여 이제 2년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농림부가 후원하고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 모임이 주관한 행사에서 우수축산물 브랜드육으로 인증 받은 브랜드이다. 이것은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좀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수축산물을 생산·공급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백산 썩돈은 생산자 및 행정·연구기관, 사료·유통업체등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좀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브랜드육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자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육두수 및 판매 유통망을 확충해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욱 철저한 제품의 품질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양돈산업 기반 구축에 앞장서 돼지부문의 대표 브랜드육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썩원료 확보를 위하여 벼농사 대신 썩을 눈에 재배할 때도 사료작물로 인정하여 일정수준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